



해인의 기능증대

해인으로 이룬 일은 계속 확대되는 형태로 이야기된다. 해인은 처음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쌀이나 옷 등의 물건을 요구하는 대로 나오게 하는 정도의 보물로 표현되었다. 그 후 해인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에 의해 해인사라는 종교적 건축물을 단시일에 완성하는 이적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된다. 나아가 해인이 다시 한번 지상에 출현할 때에는, 세상을 구원할 것이며 특히 우리 민족을 잘살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와 같이 해인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증가가 해인설화에 반영되었다. 단순히 몇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해인은 해인사라는 성스러운 건축물을 창건하여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급기야 해인은 세계의 구원을 담당할 위대한 보물로까지 믿어졌고, 그 주역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믿음은 이미 구체적이고 작은 일에서 해인의 기능이 확인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해인은 나라의 운수를 활짝 열어줄 보물로 믿어지게 되었다.

해인설화에 나타난 이상세계관

해인설화에 나타난 이상세계는 인간계와 전혀 다르지 않은 세계로 표현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인간계와 비슷하게 용왕국이나 용궁에도 왕과 왕자가 있으며, 용왕과 용왕의 부인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시너블과 맛있는 음식과 기와집 등이 있다. 그리고 용왕의 모습도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

가②의 “고래 집 같은 큰 기와집”, 가④의 “용상에 앉은 용왕”, 가⑥의 “기와집”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다만 가⑥의 “무섭게 생긴 용왕”, 가⑦의 “용궁에 가니 겁나더라.” 등의 표현에서 지상계와는 다른 세계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한국의 보물, 해인<15>

한편 가②의 “수중 낙원”, 가③의 “세상에 없는 음식상”, 가⑥의 “달에 있는 계수나무 벌레와 천도복숭아”, 나①의 “조선에는 없는 음식인데, 먹어도 배가 고프지도 부르지도 않음”, 나②의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이리때깔이 생긴 생령 사자의 목에 팻말이 걸려 있음” 등의 표현을 통해 지상에 없는 신기한 음식과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용궁은 물질적 축복이 보장된 세계이며, 인간이 살아서도 가 볼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인간계에 전혀 낯선 공간이 아니다. 다만 인간적인 욕망이 최대한 충족되는 장소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구체적인 음식이나 존재로 나타나고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현실 세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상세계를 설정하고 있는 점도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닷속에 있다는 용궁과 육지에 있는 인간계는 수직적 이동을 통해 서로 교통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용궁은 바닷속에 있다는 사실만 두드러질 뿐, 인간계와 동등한 차원에 있는 세계이다. 인간이 죽은 후에도 또는 인간이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상의 인간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용궁에 다녀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 세상은 용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유배당해 오는 곳이라는 점에서 속된 측면이 용궁보다 많다. 죄를 지은 용왕국의 왕자는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못하고 개나 고양이나 또는 이상한 짐승으로 온다. 죄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짐승의 허물을 쓴다고 해석한다면, 두 세계 사이의 뚜렷한 위상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가⑩에서는 할아버지가 직접 “나는 너희 나라를 구경할 수 없느냐?”고 요청했다. 여기서 용궁은 인간이 구경하러 갈 수 있는 나라의 하나로 묘사된다. 다만 용궁에 들어간 인간은 비린내를 맡을 수 있었고, 반면 용궁에 있는 존재는 지상의 인간에게서 사람 냄새를 맡았다는 덧붙여진 설명에서 두 세계의 구별이 짐작된다. 이처럼 바닷속에

있다고 믿어지는 용궁에서 비린내가 풍길 것으로 생각한 점은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 설명이므로, 용궁이 인간계와 전혀 동떨어진 세계는 아니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런데 가⑩에서 용궁에 잠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계에 나오니 벌써 3년이나 지났더라는 표현에서 두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별세계를 다녀왔다는 이야기에 흔히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여전히 용궁이 인간적인 것을 초월한 세계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법이다. 해인설화 가운데 이와 같은 표현은 한 번만 보이는데, 이는 화자의 특별한 이야기 표현양식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한편 가④에서 용왕의 딸이 어머니라고 부른 60대의 할머니는 용궁에 가지 못했다. 그리고 가③에서 용왕의 아들이 어머니라고 부른 할머니도 용궁에 가지 못했다. 부부가 함께 개를 길렀고, 용왕의 아들이나 딸이 혈연을 강조하는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렀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용궁에 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

어머니라는 호칭을 고려해 본다면, 부부를 함께 용궁에 초청했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 또 용왕의 아들은 왕자나 태자로 표현되는데, 용왕의 딸은 공주라고 표현되지 않는다. 당연히 공주라고 불려야 할 텐데 그렇게 부르지는 것이다. ‘체녀’, ‘용왕의 딸’이라고만 표현될 따름이다. 그리고 용왕의 부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가⑩뿐이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지나게 된 까닭은 전통적인 남녀차별의식이 해인설화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동등한 입장과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할머니는 이상향에 갈 수 없거나, 용왕의 딸은 공주로 불리지 못한 것이다.\*

김탁 박사/신종교 연구가

새로운 보혜사 성령의 새말씀【4】

르고 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는 당시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자 들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예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다. 이런 기록을 보아 예수는 하나님의 신과 성령에 무지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므로 동정녀도 영적인 동정녀

무엇보다도 예수가 성경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자신이 성경의 시작과 인류사의 근본이 되는 선악과를 물론, 죽을 인생들에게 죽지 않게 하는 생명과일을 먹게 하여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해주고 있다. 성경의 주인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라면 태초의 역사를 자세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선지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여 하나님의 신을 모신 선지자들을 모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사가 43장 11절의 말씀도 모르고, 자기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진짜 강도요 도적이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된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긴자 구세주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비법의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사가 34장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와 말씀은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이 없으니 성경의 처음과 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짝이 맞는 것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마귀가 되는 사탄의 말이라는 것이다.

먼저 영적인 말씀이라 함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물이나 인간의 육체에 비유하여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의 말씀이나 영적으로 해석해야 성경이 풀린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악

과와 생명 과일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선악과는 원죄가 되는 마귀의 신을 말하며, 생명과일은 선악과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써, 이사가 7장 14절 이하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 역시 세상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와 거짓이 없는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영적으로 구세주를 낳아 키운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알 때에 꿀과 버터를 먹는다는 것도 영적인 꿀과 버터를 이르는 말로써, 태초에 감추었던 생명 과일과 만나를 먹는다는 영적인 말씀이다. 세상 풀이라면 누

구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해를 입을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는 말씀에서 인간 여자가 해를 입을 수 없으니, 이 또한 영적인 말씀으로 해는 하나님의 신을 비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을 모신 순결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가 아이를 배어 낳는다는 것 역시 구세주 이긴자를 키워 배출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앞의 이사가 7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계시록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서로 짝이 맞으며, 영적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구세주 이긴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영적으로 잉태하여 배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기에 대입하여 풀면 전혀 맞지 않는 예수의 성령 잉태설이나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신화가 탄

생하는 것이다. 구세주를 논함에 있어서도 구세주의 혈통과 출현 장소, 능력과 구비조건들이 맞아야 진짜 구세주 이긴자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말씀의 짝을 맞추어 다음에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이제 그대로 인류 역사 6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선악과와 생명 과일의 정체를 논하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 되신 구세주 이긴자 하나님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감추었던 비밀을 밝혀 알려 주시고,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방법을 알려 주시며,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 주시니 인류는 점차 사망의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 인류가 꿈꾸어 오던 불로불사 불생불멸의 영생의 새로운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一行 徐輔睦

이긴자가 세상으로 처음 나와 전도한 세 사람

조희성님은 밀실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나’를 의식하지 말라고 하시기에, 하나님만 고도로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로 일관하게 되니까 자신의 이름마저 잊어버리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더라?” 같이 연단을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물어보면, “기뻐!” 하고 할 것이므로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밀실에 임문할 때 입고 들 여간 양복이 방안에 걸려 있었는데, 우연히 그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그 속에 주민등록증이 있기에 꺼내 들고 보고서야 “야, 내가 조희성이었구려!”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양복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주민등록증을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희성 주님을 그와 같이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고 잊어버렸던 이름을 알게 된 그 다음날에 “이긴자가 됐다!”라는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다녀오려!”고 하시기에 앞도리면 그 달을 곳 소사신양촌의 집을 주민등록증을 보고 물어 물어 찾아갔던 것입니다.

법박동 28번지 C5동 4호실이 되는 집에서 어머니를 만나 뵈고 밀실로 다시 돌아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잘 이기고 나가니까 일주일 만에 “완성자가 됐다!”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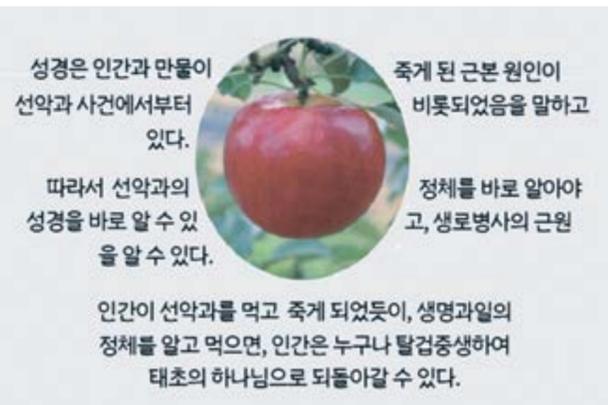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와서 별로 큰 의미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완성자가 되었다’는 말씀 속에 승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그 다음부터

밀실 식구들은 조희성 주님을 ‘조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 주 하나님 이외에 주님이라고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됐다!”고 했을 때, 조희성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되신 거죠.”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 년 가까이 되어서야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조희성 주님은 밀실에 임문하던 날이 8월 18일 오후 3시 50분이었는데, 밀실에서 전도하러 나올 때도 8월 18일 오후 3시 50분에 출발해 나간 것입니다.

조희성 주님이 세상에 전도하러 나온 첫날에 맨 먼저 목수(木手)를 만나게 되어 전도하게 되었는데, 목수는 성령의 불을 받는 은혜체함을 하는 동시에 자신이 앓고 있던 죽을병이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목수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종로2가에 사는 의사(醫師)를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의사 역시 “온몸이 불덩어리로 휘감긴다.”고 하면서 불성령의 세례를 받고 마음 문을 열고 이긴자의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독교 장로(長老)를 만나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장로 역시 불을 받고 이긴자가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말씀에 감복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방에 걸려 있는 예수 사전을 떼내어 갖기까지 찢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장로는 영락교회 교인이면서 삼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하며 불성령 세례의 은혜를 베풀면서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심을 그 이긴자의 진리말씀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4. 성경에 무지했던 예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마지막 때 오실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미 2천년 전에 선악과와 생명과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열두 제자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정체를 알려 주었을 것이며, 이 세상은 벌써 원죄가 되는 선악과를 해결하고 생명과일을 먹고 불사영생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즉,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영생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고통과 죽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수 자신이 성경에 숨겨진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정체를 몰랐고, 성경의 비밀을 해석하는 방법도 몰랐으며, 성경의 주인공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예언된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도 아니라는 증거다.

예수가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예수 이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되니 성경이 예수시대에 와서 고쳐졌다가 된다. 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보라. 그 첫 계명이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여 하나님에 앞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먼저 내세워 기도하도록 했다.

두 번째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계시해 놓았다. 그럼에도 예수는 자기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처사임을 알 수 있다.

또 신명기 21장 2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였는데, 예수가 십자가 나무 형틀에 못박혀 희생당했다 하여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비성경적인 종교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BBC방송국의 기자가 쓴 『성경과 성배』 책에 의하면 사실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공중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의 곁을 이 되는 홍표를 두른 강도를 예수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예수는 로마병정의 호위 속에 외국으로 망명하여 프랑스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면한 것은 다행이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오늘날까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십자가 형상의 조각물을 만들어 절한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한다고 할 수 없다.

예수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모르나 자기 이전에 온 모든 선지자들을 도취하고, 강도라고 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마저 자기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가 삼위일체라 부